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겨울 학술행사

제14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임정빈) 겨울 모임이 2003년 2월 12일(수)에서 14일(금)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학술활동은 특별강연, 일반주제 발표 및 연구소모임 등으로 이루어졌다. 포천중문의대 전세일 박사가 “동서의학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고, 국립보건원 이종영 박사의 “Genomic organization and sequence variation of IGF-H19 imprinted region in Korea” 논문 외에 23명이 일반주제로 총 24편을 발표하였다. 소모임으로 생물공학연구협의회 회의, BIO-NRL 연구



발표회, 국립보건원 모임 등이 있었으며, 특히 연구실 혹은 실험실 단위로 많은 분이 참석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와 학술토론이 있었다.

과학문화상 후보 3월 10까지 접수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은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후보자를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과학문화상은 신문 방송 잡지 도서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영상·오디오, 신문·잡지·도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여된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간 과학기술문화 보급에 기여한 방송프로그램, 영화·영상물을 만든 제작자와 작가, 신문이나 잡지 기자 또는 기고가, '2002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선정도서의 저자 등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 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과학문화활동에 대해 별도의 지원도 이뤄

진다. 문의 한국과학문화재단(02-555-0701)

한국수자원학회 수공학 워크숍 개최

제11회 수공학 워크숍이 2003년 2월 6일부터 이틀간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수공학 분야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법의 소개 및 문제해결에 관한 토론의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안상진)의 연차사업이다. 이 워크숍에서 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의 고익환 박사와 박상근 연구원은 MODSIM을 이용한 하천 유역수자원 시스템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고, 선문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한편 이 워크숍의 모든 참여자에게는 PC상에서 간본 프로그램으로 실습할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지식정보화지원 유통 협력협정서 조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시중)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조영화)이 지난 2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여러 과학기술인과 학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회 지식정보지원 유통 협력



화를 위한 협력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학회 정보화 지원사업을 괴충과 KISTI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여 학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귀중한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온라인으로 유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괴충 김시중 회장은 “앞으로 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을 괴충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대규모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다. 2월 12일 오후 서울파이낸스 센터 7층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1.25인터넷 침해사태 관련 보안컨퍼런스’에는 정보보안 관련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의식 고취 및 관련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보보안 관련 인사 400여명이 몰려 인터넷 미비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에 관심이 고조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업체인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안철수연구소, 시큐아이닷컴 등 유명 보안업체들이 참가해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해킹, 바이러스 현황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컨퍼런스를 주관한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 김동일 사장은 향후 1.25 사태와 같은 바이러스 및 해킹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IT(정보기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